

‘거리두기 해제 첫주’ 학생 5만 여명 확진

하루 평균 7878명 감염...첫 1만명 밀 25일 학교 99% 전면등교, 학생 96%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일주일 동안 전국 유·초·중·고 학생 5만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다음달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면 등교율은 99.8%,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에서 유·초·중·고 학생 5만 514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됐다. 전주인 12~18일 9만1225명보다 3만 6079명(40%) 줄어든 수치다. 올해 1

학기 들어 누적 확진자는 203만1351명으로 늘어났다.

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7878명으로 학기 시작 이후 처음 1만명 아래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8~14일 5만8450명에서 5만8166명→5만 2932명→3만7134명→2만3832명→1만3032명→7878명 등 6주 연속 감소세다.

교직원 확진자는 같은 기간 7150명이 추가 집계돼 누적 18만2652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집계지에서 시도교육청 중·복·지역 보고로 인해 지난 18일 이전 나온 학생 3300명, 교직원 361명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학령기별 학생 확진자는 초등학교가 2만9349명(53.2%)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학생 1만3164명(23.9%), 고등학생 9010명(16.3%), 유치원생 474명(0.9%) 등 순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만2922명(41.7%), 비수도권에서 3만2224명(58.3%)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25일 유·초·중·고 학생 전체 587만4130명 중 96.6%인 567만3058명이 등교했다. 학생 등교율은 최근 4주 동안 90.3%, 93.4%, 95.5%, 96.6%

로 상승세다.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확진, 코로나19 임상증상, 신속항원검사(RAT) 등으로 자가진단 앱에서 등교 중단을 통보 받은 경우나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이다.

학교는 2만156개교(99.5%)가 전면 등교했다. 부분 등교는 61개교(0.3%)였으며,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 학교는 없었다.

대학에서는 지난 19~25일 학생 2377명, 교직원 575명이 확진자로 추가 집계됐다. 개강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학생 18만2582명, 교직원 2만 2060명이다.

김재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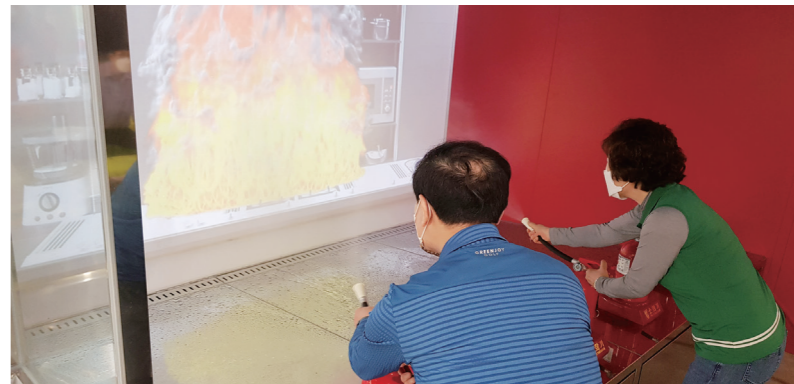
여수경찰,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현장점검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22일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도서지역인 손죽도, 초도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안전한 나주 만들기 위한 1호 자위방범 CCTV 설치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마을 자위방범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를 기증한 영산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광호), 노인회장, CCTV 설치업체 등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남구119안전교육센터, '소방안전교육으로, 더욱 안전하게'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남구 119안전교육센터에서 만 5세 이상 시민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119산악안전봉사의 날'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24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활동 전개를 위한 시민 참여형 무등산 119시민산악봉사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화전 clean 워킹'가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소화전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이 미지 제고를 위해 21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화전 clean 워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무등산국립공원, 산악연맹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23일 광주광역시 산악연맹과 함께 무등산 정상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거역연대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등 참가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주유소 우측 인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조국 잣대로 정호영 수사해야”...민주당 의원들, 국수본 면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을 찾아 남 본부장과 30분 가량 만났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들이쳤던 잣대로 본다면 (정 후보자 사건에도) 공정성과 수사방향이 다른 잣대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어느 때는 순식간에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증거 인멸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아들·딸들이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 최고 지위에 있던 특별한 상황에서 편입을 했는데, 기존에 없던 특별인재영입제도가 그때 막 만들어 졌다"며 "또 25명의 면접관 중 정 후보자의 논문공저자가 4명이었는데, 2명이 면접을 봤고 나머지 2명도 최고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을 얘기하는데, 과연 자신과 관련해서도 공정한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이 눈치 보지 말고 빠르고 단호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남 본부장) 사건이 언제 경찰에 접수됐고 배당됐는지 얘기했다"며 "경찰이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년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으로, 아들은 이듬해인 '2018년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서 합격했다. 각각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이번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경북대병원 제검사에서 척추협착증 판정으로 4급 보충역 대상으로 바뀐 것을 두고 병역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는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정 후보자와 박태인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경북대 등 소재지를 고려해 대구경찰청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고령화·코로나로 2월 사망자 역대 최대

혼인, 10개월 만에 증가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는 75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면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8개월째 이어졌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동월 기준 역대 2번째로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654명으로 전년보다 3.2%(-674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동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전년보다 22.7%(5394명) 증가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증가 폭은 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크게 늘었다. 조사방물은 7.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사망자 수가 적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2월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8535명을 기록했다.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자연 감소가 지속되는 셈이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5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36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혼인 건수 규모는 동월 기준으로 지난해(1만4972건)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노 과장은 "작년 2월 혼인 건수가 많이 감소한 거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했다"면서 "혼인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이혼 건수는 7136건으로 전년보다 8.0%(-621건) 쪼그라들었다.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이슬기자

정부 “신종변이 가능성 여전...유행 대비 정비 중”

비상 계획 수립...“중수본 개편 등 준비”

정부가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바이러스 활동력도 강하게 될 것이고 다시 큰 규모의 유행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의 유행에 대비해서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정비하고 단계별로 조치계획도 수립해나가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박 반장은 "새로운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며 "만약 새로운 그리스어로 명명이 필요할 정도로 전파력과 치명률이 강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또 예방접종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전 세계와 협조하면서 변이 감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반장은 "날씨가 점점

더워져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3월 환경은 여전히 위험하다. 자주 환기를 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른 중수본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업무량이 많았을 때 조직이 보강된 부분이 있었고,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필요성) 있지만 중수본은 재난 단계와 연관돼 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